

## 종교개혁과 평신도

교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스스로 돌아보며 참회와 반성의 시간을 가져 보고자 한다. 필자가 이해하는 종교개혁의 중심사상은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 생각한다. 성경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져 읽는 자들에게 주님과 소통하는 제사장적 삶을 살 수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만인은 평등함을 일깨워 준다.

하지만 한국교회의 현실은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당시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교회를 사고파는 매매가 이루어지고, 성직도 다분히 거래되고 있는 현실이다. 교회 건축을 위한 현금을 강조하고 이것이 하늘에 쌓아 두는 보물이라며 성도들을 비교하고 경쟁시키는 경우도 허다히 경험하게 된다. 특히 성직자와 평신도로 구분되어 있는 교회의 신분체제는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드러내고 있다. 담임목사 중심의 교회 운영은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여 말씀을 가르치는 리더가 되는 것을 불편해하는 성직자도 있으며 직분이 마치 신분의 높낮이로 이해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본 칼럼은 국민일보와 공동연재합니다. (국민일보 오피니언면 월드뷰 2016.1.30일자)

우리나라에서는 이름 대신 성씨 뒤에 직급을 부르는 경우가 많다 보니 회사에서뿐 아니라 교회에 와서도 장로, 권사, 집사 등의 호칭을 마치 계급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일반인들도 마치 교회에 목사-부목사-장로-권사-안수집사-집사 등의 서열이 있는 것처럼 이해하며, 성도들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장로와 권사의 직분을 받기 위해 인위적인 노력을 하는 행태를 보게 된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형제요, 자매이다. 또한 직분은 지위의 높낮이가 아니라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세로 겸손히 임하는 것이 옳은 마음가짐이라 생각된다.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과정에서도 목사가 아닌 평신도의 경우 제대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정식으로 파송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일정한 선교훈련을 마쳤고 파송되는 지역의 필요에 합당하다면 성직자나 평신도 모두 선교사로서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130년 전 조선을 찾은 선교사들이 이러한 구분 없이 아름답게 동역한 역사를 보면 한층 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의료선교사, 교육선교사, 기술선교사 등 복음과 함께 우리가 가진 재능과 은사를 사용하여 전도하고 이웃을 섬기는 다양한 평신도 선교사가 많이 배출되어야 한다.

또한 일상의 삶은 세속적이고 교회의 삶은 거룩하다는 이원론적인 신앙을 가진 경우가 많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 어디에서라도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드러져야 할 것이다. 어찌면 주일보다 6일간의 교회 밖 세상에서의 삶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할 치열한 영적 전쟁터일 수 있으며, 교회의 찬양시간 못지않게 직장에서 정의를 사랑할 실천하며 쾌락에 휩싸인 회식문화를 바로잡는 사역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일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심방 다녀오는 길에 낙태시술을 받는 집사가 있는가 하면, 기업에서 회계부정을 저지르는 기독교인이 결코 적지 않고, 자살이나 불륜, 이혼에 있어서도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중세시대에 면죄부를 팔며 돈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민중을 현혹시켰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생명보다 돈을 중시하는 세태가 되었다. 평형수가 실려야 할 공간에 돈을 벌기 위한 컨테이너가 쌓여 배는 평형을 잃어버리고 300명의 생명이 물속에 가라앉고 말았다.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말에 안전은 뒷전이 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범죄자들이 상당수가 자칭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다. 그들이 배운 신앙과 그들의 삶은 너무도 다른 것이다. 어떤 장로님을 면회하러 교도소에 간 적이 있었는데, “장로님”이라고 불렀더니 동시에 여러 명이 저를 돌아보는 것이었다. 뉴스를 장식하는 사건마다 행여 목사, 장로가 주인공일까 봐 조마조마하다.

문제는 형식이나 껍데기가 아니라 실제 내면일 것이다.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며,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임을 재확인해야 할 것이다. 필자 부터라도 이제는 비본질적인 것을 내려놓고 정말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기를 소망한다. ☺



**박상은** 안양 샘병원 의료원장이자 대통령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이사장이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오랜 동역으로 이사 및 <월드뷰> 편집위원으로 섬기고 있다.